

서해어업관리단,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

- 조업 후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 단속 -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월 30일(화)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.

우리 배타적경제수역(EEZ)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*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*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

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(무궁화15호)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'24년 1월 29일 22:30경부터 1월 30일 08:26경까지 조업하며 어획물을 약 1,200kg 포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< 나포 현황 >

일시 / 장소	선명	톤수	승선원	위반사항
2024. 1. 30.(화) 09:04 /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50해리(약 93km)	노영어 A, B호 (중국 2척식 저인망어선)	106톤	각 선 8명	조업일지 미기재

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,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.

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“우리 배타적경제수역(EEZ) 내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,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	책임자	과 장	김원배 (044-200-5560)
		담당자	사무관	정재현 (044-200-5571)
<서해단>	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	책임자	과 장	최정호 (061-240-7904)
		담당자	주무관	정무학 (061-240-7940)

참고

중국어선 단속 사진



선체 전경



노영어A호 갑판상 어획물 점검